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박재희 인문학공부마을 석천학당 원장

중국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보복은 오자서(伍子胥)의 응징이다. 춘추시대 초나라 귀족이었던 오자서의 집안은 하루아침에 역모(逆謀) 죄로 기소되어 멸문의 화를 당한다. 초나라 평왕(平王)의 신하였던 오자서의 아버지 오사(伍奢)는 간신 비무기의 모함으로 큰아들 오상과 함께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였다. 오자서는 죽고 싶었다. 혼자서 비겁하게 살아가며 마음의 상처를 평생 안고 살 자신이 없었다. 그러나 그 죽음은 가치 없는 죽음이라 생각하고 끝까지 살아남아 응징할 것을 다짐하며 오(吳)나라로 망명한다.

오자서는 왕위 계승순위에서 밀려 있던 공자(公子) 광(光)을 왕으로 만들며 김메이커로 부상하여 권력의 중심에 선다. 오자서는 권력을 남용한 초나라 평왕을 응징해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결국 자신이 만든 오나라 왕 합려의 동의를 받아내어 '손자방법'의 저자 손무

한 남자의 응징

와 함께 자신의 조국 초나라를 공격하여 수도인 영을 함락시킨다. 자신의 가족을 풍미박산 낸 평왕이 이미 죽어 무덤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무덤에서 평왕의 시신을 파내어 채찍으로 300대를 내리쳐 부모의 원수를 갚아준다. '굴모면시(掘墓鞭屍)', 묘를 파내고 시신을 꺼내서 채찍으로 때린다는 의미의 사자성어다.

조선의 연산군은 자신의 생모 윤씨를 참소하여 죽게 한 신하들에게 부관참시(剖棺斬屍)를 하였으니, 묘를 파내고 죽은 시신을 훼손하여 응징하는 전통은 동양의 역사에서 자주 있었던 일이다. 사마천은 오자서의 지독한 응징 장면을 묘사하면서 그의 옛 친구였던 심포서의 충고를 '사기'에 적고 있다. "그대는 이미 죽은 사람을 묘에서 파내 욕보이니 한때 신하였던 자로 너무 극약무도하지 않은가?" 이런 충고를 들은 오자서는 이렇게 대답한다. "해는 저물고 응징할 시간은 없다(日暮途遠, 일몰도원). 이런 방법을 써서라도 무도한 대가를 치러야겠다(倒行逆施, 도행역시)." 자신의 부형을 죽이고 집안을 망하게 한 사람에 대한 응징, 아마도 오자서는 그 일념 하나로 모진 세월을 견뎌왔기에 응징이 잔인하다는 친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다.

모든 것을 잃은 한 남자의 응징은 비장하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기에 두려울 것도 없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한 맺힌 남자의 멋진 응징을 응원한다. 사람들은 모두 가슴 속에 응징의 대상을 하나씩 갖고 살기 때문일까. 오자서의 응징 이야기를 열전(列傳)에 기록한 사마천도 49살 나이에 아무 죄 없이 궁형을 당하였다. 억울하고, 답답하여 잠을 자다가도 몇 번이나 깨어 일어나서 입은 옷이 땀에 흠뻑 젖은 채로 멍하니 생각에 젖었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장이 꼬이는 고통을 받았으니 그 억울함과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을지 짐작할 수 있다. 무엇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정적에 의한 모함으로 18년 동안 유배생활을 한 정약용 선생도 억울함이 있었을 것이고, 8년간 유배지에서 고통 받은 김정희도 통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나와 가족을 무참히 파괴하고 인생을 나락으로 몬 상대를 원망하며 살았을 것이다.

사마천은 오자서의 복수와 응징을 '열전'에 기록하며 응원한다. '오자서가 아버지를 따라 죽었다면 한날 개미의 목숨과 무슨 구별이 있었겠는가? 끝까지 살아서 치욕을 갚아 그 이름을 후세 남겼으니 대장부라 할 수 있다!'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생명의 끈을 놓아 버리는 일은 쉬운 일이나, 끝까지 살아서 재기하는 것은 대장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사마천의 평가가 귀에 더욱 선명하게 들어온다.

종교칼럼



중현 광주 중심사 주지

삶이 외로운 그대를 위해 저녁비는 내리고

자, 후두두두 하는 빗소리와 얼굴을 때리는 차가운 공기가 나를 반긴다. 언제나 반가운 친구들이다. 다만 평소엔 내가 이들의 존재를 느끼지 못할 뿐이다. 자세히 보면 세상엔 참 많은 친구들이 있다. '외로움'도 그중 하나이다.

친구로서의 '외로움'을 특별히 '적적함'이라고 부른다. 적적함을 외로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오직 사람을 통해서 그 적적함의 무게를 털어내려 하기 때문이다. 쓸쓸함과 외로움 그리고 적적함은 비슷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르다. 쓸쓸함은 혼자 있다는 사실을 자각했을 때 생기는 원초적인 감정이다. 그러나 '혼자 있음'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쓸쓸함은 적적함으로 승화되기도 하고 외로움으로 변질되기도 한다.

'혼자 있음'을 인정하고 수용하면 쓸쓸함은 적적함으로 승화된다. 이를테면 적적함은 홀로 떠난 여행지의 저녁, 어스름한 속속 밖을 무심하게 바라 볼 때 느끼는 감정 같은 것이다. 이국적인 풍경, 더없이 한가한 시간들, 낯설지만 불편하지 않은 순간들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힌다. 일상 속에서 들뜨고 긴장되고 과열된 마음이 느긋해지고 잔잔해진다. 무리 짓기를 좋아하는 인간에게 적적함은 결코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다. 쓸쓸함은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수용해야 할 그 무엇이다. 좋은 술이 익으려면 충분한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듯, 정성과 노력을 들여 쓸쓸함을 잘 숙성시키야 적적함이 된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부처님의 말씀은 바로 홀로 있을 때 진정한 자기 성찰의 힘과 깊이가 더해짐을 명심하라는 의미이다. 그런 까닭에 홀로 있음과 자기 성찰은 수행자의 중요한 덕목이다.

외로움은 다르다. 쓸쓸함과 누군가를 향한 그리움이 첨가되어, 쓸쓸함과 그리움이 상호 촉매하고 서로가 서로를 고조시킨 결과 만들어지는 복합적인 감정이 바로 외로움이다. 누룩 없이 막걸리가 나올 수 없듯, 쓸쓸함이 외로움으로 변질되려면 누군가를 향한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반드시 필요하다. 누군가를 향한 갈망은 혼자 있음에 굳이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이것이 더 뿌리깊고 더 광범위하다. 한마디로 '홀로 있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외로움은 싹튼다. 무리 짓기를 좋아하는 인간이 쓸쓸함을 견디지 못하고 쓸쓸함과 외로움을 동일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잃어버린 나의 반쪽'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쓸쓸함과 외로움을 혼동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발산하는 꿈부림이다.

나를 스치고 지나가는 모든 인연들이 곧 나의 친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은 멘탈이 강한 사람이다. 고분고분한 사람이든 성질 사나운 사람이든, 배려심 깊은 사람이든 이기적인 사람이든, 사람이든 사람이 아니든 그 무엇과도 친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는 곧 멘탈의 척도가 된다. 멘탈이 약한 사람일수록 마치 물건을 고르듯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골라 자신의 '외로움'을 지우려 한다. 그러니까 '홀로 있음'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자기성찰의 깊이를 가늠할 수 있는 셈이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돌이켜 오늘 나의 멘탈은 어떠하였는지 곰곰 되짚어 보니, 쓸쓸한 미소만큼의 무게로 어스름한 저녁이 내게 다가오고 있다. 그 광던 눈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겨울의 끝자락, 눈이 녹은 자리에 추추적 추겨 내린다. 아무래도 봄이 오긴 올 모양이다.

기고



구진성 이태석리더십스쿨 대표 이태석재단 이사

사바나의 선물

태석재단에서 강의가 이루어지며, 이태석 신부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리더십을 학생들이 배우고 익히게 하여 점차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작년에는 스웨덴 현직 5선 의원, 미국 코넬대 명예교수 등 각 분야에서 존경받는 분들을 초청하여 강의를 들었다. 강의는 한글과 영어로 진행되며 동시통역이 제공된다.

이번 여행에서 가장 감동적인 것은 국립주바대학의 과대학에 재학 중인 이태석 신부님의 제자들과 이태석 리더십스쿨 학생들의 만남이었다. 도착한 날 주바공항에는 스무 명이 넘는 제자들이 마중 나왔고, 학생들은 마치 이태석 신부님이 직접 마중나온 것만 같았다. 재단에서 준비해간 신부님 얼굴이 인쇄된 티셔츠를 입고 만난 제자들과 학생들은 오래된 친구처럼 반가워했고, 삼삼오오 모여서 해가 질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가슴 뭉클했다.

절대 잊지 못할 추억도 있었다. 수도 주바의 남쪽에 있는 로보눅까지 가는 길. 기부물품을 실은 트럭, 학생들이 탄 소형버스, 승용차, 그리고 기관단총으로 무장한 군용트럭까지 네 대가 함께 이동했다. 무장군인들이 따라나서자 학생들은 두려워했으나 오히려 군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까워졌다. 그렇게 두 시간쯤 달리다가 학생들이 탄 버스가 멈춰고 대책 없는 상태로 두 시간이 지나면서 초조해졌다.

전화번호조차 잡히지 않는 외진 곳이라 연락조차 못하는 막막한 상태였는데 멀리서 트럭 한 대가 다가왔다. '이게 뭐지? 차 한 대 지나가지 않던 길에 웬 대형

트럭이? 이걸 기적이야!'라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엔도르핀이 솟구쳤다. 사정할 것도 없는 것이 그 트럭은 마침 로보눅으로 가는 길이었기에 트럭을 타고 무사히 로보눅에 도착할 수 있었다. 만약 트럭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트럭은 이태석 신부님이 보낸 선물이었음을 믿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의 활동들이 알려지자 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관료들의 감사가 이어졌다. 부통령은 지난 10년 간 병원과 학교 등을 꾸준히 도와준 이태석재단과 중헌제 약에 감사를 표했으며, 이태석재단 구수환 이사장은 톤츠의 이태석학교와 더불어 전쟁고아 후원 활동도 새로 시작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렇게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귀국길은 걱정반, 기대 반의 출국 때와 달리 기쁨 반, 보람 반이었다. 섬김의 리더십을 한 단계 더 이해하고 사랑과 봉사를 체험하고 돌아온 학생들이 자랑스럽고 봉사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해준 구교신 미주국장, 김성미 감독, 이강운 감독, 최은정 선생님, 서예림 팀장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이태석재단을 통해 섬김의 리더십을 전세계에 퍼트리고 있는 구수환 이사장께 감사드린다.

이제 왜 남수단을 생각하면 가슴 먹먹한 감정이 생기는지 어렵잖이 알 것만 같다. 우리를 따뜻하게 했지만 이젠 서서히 잃어가고 있는 '순수함'과 '남을 돕는 선한 마음'이 아직 그곳에는 남아 있고, 그것을 위해 일생을 바치신 이태석 신부님의 사연이 깃들은 땅이기 때문이리라!

社說

공식 선거운동 돌입...정책·인물로 승부해야

어제부터 4·10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광주와 전남에선 각각 36명씩 72명의 후보가 출마했는데 정당별로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광주에선 28일 비가 내리는 곳도 날씨에도 5·18 민주묘지와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 등 상징적인 장소 등을 찾아 유권자들을 향해 환표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당원 400여 명과 함께 5·18 민주광장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을 갖고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경제전문가들을 활용한 지역 예산 확보 등을 공약했다. 국민의힘도 5·18 민주광장에서 선거운동 챌린지 행사를 갖고 총장로 상가 주변 청소로 유권자에 다가갔다.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연합과 국민의미래 후보들도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지지를 호소했는데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이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광주를 찾아 5·18 왜곡 처벌 강화와 5·18 유공자를 항일 열사급으로 예우하자고 강조해 광주에 공을 들이는 모

습을 연출했다.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등 소수 정당 후보들도 출정식을 갖고 유권자들과 접촉면을 늘리기 시작했다.

사전투표일(4월 5·6일)을 감안하면 사실상 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야당의 '정권 심판론'과 여당의 '거야(巨野) 심판론'에다 제3세력의 '대안론'이 맞서고 있다. 하지만 정책이나 공약, 인물은 뒷전으로 밀리고 상대편을 향한 극단적인 혐오를 조장하는 선거로 진행되고 있다. 정치가 팽팽화되고 진영간 갈라치기가 일상화되면서 혐오 공격이 이전보다 훨씬 심해지고 있다.

호남에선 이번에도 텃밭인 민주당의 독주가 예상된다. '지민비조'에 따라 비례정당 투표에선 조국혁신당의 돌풍도 심상치 않다. 특정 정당에 대한 쏠림 현상이 여전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정책과 공약, 인물로 유권자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표심은 언제나 유동적이었다는 사실을 되새길 시점이다.

광주·전남 화재 절반이 부주의, 경각심 높여야

광주·전남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절반 이상이 담배꽂초 투기나 쓰레기 소각 등의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일어난 화재 건수는 하루 평균 5건이 넘고 부상자와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광주·전남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올해 광주·전남에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총 448건(광주 73건, 전남 375건)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796건(광주 155건, 전남 641건)으로 전체 화재의 56.2%가 부주의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5명이 부상을 입었고, 20억원이 넘는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의 원인도 다양하다. 담배꽂초 투기에서부터 쓰레기 소각, 논·밭 태우기, 전기기기 사용 부주의 등 일상 속의 사소한 실수가 대부분이다. 광주에서 올해 발생한 부주의 화재(73건) 중 34%(25건)가담배꽂초가 원인이었다. 특

히 봄철에는 화재사고의 절반 이상이 부주의에서 비롯됐다. 등산객이 무심코 버린 담배꽂초나 쓰레기를 소각하다 된 불씨가 계절적 특성인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와 만나 순식간에 번지기 때문이다.

광주와 달리 전남에서는 쓰레기 소각(97건)으로 인한 부주의가 전체 화재 375건의 25.8%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불꽃 불꽃 화원 방치(66건), 담배꽂초 투기(53건), 전기기기 등 사용·설치 부주의(47건) 등의 순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쓰레기 소각으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이 기간 2명이 다쳤고 3억 2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수간의 방심으로 인한 화재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당국과 지자체는 각종 집합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시민들한테 화재예방수칙을 준수하는 등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 하나를 고르려면 단연 사과일 것이다. 지난 설 이후 가격이 급등한 '금사과'를 조금이라도 싸게 구매하기 위해 할인행사가 열리는 대형마트에서는 '오픈런'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정부와 여당은 사과를 비롯한 과일 가격을 낮추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야당은 물가 안정에 실패한 정부를 연일 공격하고 있다. 총선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은 패를 나눠 사과 한 개 값이 '5000원이니, 1만원이니'를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불화의 사과

금사과 대란에 자연스럽게 오버랩되는 신화가 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금사과 한 개가 국가를 멸망시키는 소재로 등장한다. 바로 트로이 전쟁을 촉발한 '불화(不和)의 황금사과' 사건이다. 어느 날 아이아코스 왕의 아들 펠레우스와 바다의 여신 테티스의 결혼식에 모든 신들이 참석했는데 유일하게 초대받지 못한 신이

있었다. 바로 불화의 여신 '에리스'였다. 초대받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은 에리스는 결혼식장에 황금사과를 던졌다. 이 사과에는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라고 적혀 있었고, 이를 본 헤라와 아테나, 아프로디테 등 세 명의 여신은 서로 자기 것이 라고 주장했다.

판결을 맡은 제우스는 원망을 듣지 않기 위해 트로이 왕자로 당시 목동일을 하던 '파리스'에게 가장 아름다운 여신을 결정하도록 한다. 아테나는 전쟁에서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헤라를 약속했고, 헤라는 지상의 권력을, 아프로디테는 최고의 미인을 약속했다. 파리스는

황금사과를 아프로디테에게 주고 그 대가로 아프로디테는 파리스가 최고의 미인인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네를 빼치고 트로이로 도피하게 도와준다. 이는 트로이 전쟁의 발단이 됐고, 이후 10년간 수많은 목숨이 전쟁에 사라졌다.

현실세계에서도 사과가 한 나라를 흔들다니 아이러니다. 불화의 사과가 되지 않도록 유통구조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치권의 몫이다.

/채희종 정치·사회담당 편집국장 chae@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and other contact information.